

---

## 코뿔소 밀렵의 정치경제: 원조공여국 주도로 만들어진 SADC 국경 관리 원칙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수원\*\*

---

본 연구는 남아공-모잠비크의 접경에 위치한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벌어지는 코뿔소 밀렵을 통해 원조 공여국 주도로 만들어진 SADC국경 관리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남부아프리카 코뿔소 밀렵의 역사 및 오늘날 국제정치경제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된 밀렵 대응 방식과 그 문제점을 지역 국경 관리의 측면에서 재해석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남아공과 모잠비크에서 현지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남부 아프리카의 지역기구인 SADC에서 지역화는 지역 통합을 통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간 국경관리 역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서구 원조 공여기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SADC의 국경 관리 원칙은 원조 공여국의 이해에 따라 고안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과 국경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SADC의 국경관리원칙은 그 근본적인 목적인 지역 경제 성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지역의 경제 성장을 잠식할 뿐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지역에 사회, 정치,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아프리카, SADC, 국경, 야생동물 보호구역, 밀렵, 해외 원조

---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Webster University

## 1. 들어가며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ittee)은 남부 아프리카 총 15 개국을 아우르는 지역 기구로, 최남단의 남아공을 시작으로 중부 아프리카지역의 콩고민주공화국 아래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을 그 멤버로 한다. 세계의 다른 지역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SADC은 지역 통합의 진전을 통한 SADC 회원 국가들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지역 기구 내의 회원국 간의 국경 관리는 지역 통합의 진전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현재 SADC 국가 간의 국경은 EU (European Union)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제 원조공여기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CBM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에 따라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기본으로 하는 SADC국가 간의 국경 중에서도 크루거 국립 공원(Kruger National Park)을 경계로 하는 남아공-모잠비크 간의 국경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맞물려 지역 내 가장 민감한 국경 중 하나이다. 우거진 수풀과 야생동물로 국경을 갈음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국경은 역사적으로 모잠비크 내전 당시 모잠비크 반군 및 남아공 정부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모잠비크의 경제난을 피해 남아공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오려는 모잠비크인들의 밀입국 통로였다. 이 허술한 국경은 사회 경제적 불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생태학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구멍 뚫린 국경을 통해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 코뿔소를 살해하는 밀렵꾼들이 남아공의 국립공원으로 잠입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 세계 코뿔소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림 1-2). 그러나 2014년 남아공에서 한 해 1, 215 마리의 코뿔소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밀렵에 의해 살해당했고, 이 밀렵의 75%는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발생했다. 크루거 국립 공원은 남아공-모잠비크 접경지대에 위치한 길이 400 km, 넓이 60 km<sup>2</sup>규모의 야생 동물 보호구역으로, 공원의 동쪽 경계는 모잠비크와의 접경이며 (그림 1-1), 밀렵꾼의 80-90%가 이 접경을 통해 공원으로 잠입하는 모잠비크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Appel 2013).

그림 1.



자료: www.pbc.org

그림 2.



자료: 크루거 국립공원의코벨소 (저자촬영)

본 연구는 남아공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벨소 밀렵을 통해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관리가 역으로 오히려 지역의 경제 성장을 잠식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한다. 또한 이 연구는 최근 밀렵에 의한 객체 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의 감소를 겪고 있는 동부아프리카의 탄자니아나 고릴라 밀렵과 싸우고 있는 동부아프리카의 우간다 등 타 아프리카 국가 연구 뿐 아니라, 국경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점을 복합적인 측면에서 재해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SADC의 국경관리 원칙과 코벨소 밀렵 대응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아프리카 환경과 정치 경제에 관한 서적 및 학술지를 기본으로 통계 및 조사 연구 보고서, 학술지, 정부 발행 자료 등 1차 및 2차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주체의 역사적 그리고 다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코벨소 밀렵은 2014년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매달 남아공 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코벨소 희생에 관한 집계를 이용하였으며, 정부 통계 외에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보는 뉴스 미디어를 주로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이러한 초기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모잠비크와 남아공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는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모잠비크-남아공 간 운송업 종사자, 및 남아공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모잠비크 인, 남아공 크루거 국립 공원 내 코벨소 감시인, 남아공 환경부 직원 등이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는 본 연구와 같이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한 주제

를 연구하는 데에 효과적인 연구 전략이다 (King 2004, 21). 또한 정형화된 설문지의 사용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응답자들을 인터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Babbie (2007, 276)의 방법론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정형화된 설문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터뷰는 대화 형식의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모잠비크 인들은 응답자의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반면, 남아공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강조해서 요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남아공 응답자는 직업으로 이름을 대신한다.

이하 본 연구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한다. 이어지는 2장은 코뿔소 밀렵의 근본적이고 다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코뿔소를 중심으로 한 남부 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 구역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2장의 이어지는 부분에서 오늘날 남부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의 국제 정치 경제를 분석한다. 2장에서의 밀렵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밀렵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논한다. 우선 오늘날 남아공 및 SADC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에 대응하기 위해 주된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무력대응전략을 설명하고 이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무력대응의 단점을 보완하고, 코뿔소 밀렵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SADC 국경관리의 개선을 제안한다. 이 부분은 현재 SADC의 주된 국경관리 원칙인 CBM을 야생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글은 본론에 대한 요약과 향후 관련연구 조사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종결한다.

## 2. 남부아프리카 야생동물 보호

### 2.1 역사

Duffy (2014, 829)는 밀렵을 “정부나 개인 소유자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따라서 남부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이 정부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던 시절, 즉 유럽인이 남부 아프리카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밀렵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원주민인 산(San) 족은 코뿔소를 비를 부르는 동물로 여겼으며, 비가 오지 않을 때 코뿔소를 사냥해서 그 뿔로 기우제를 지냈다 (SANPark 2012c). 사냥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의 공급처였고 생활의 일부분이었으며, 범죄가 아니었다.

유럽인들이 남부 아프리카에 들어와 정부와 법을 만들고 야생동물보호 구역을 지정한 후, 이 야생

동물 보호구역내에 혹은 근처에서 거주하던 아프리카 흑인들의 사냥은 밀렵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영양의 공급처, 및 생계의 수단이던 사냥이 불법화되자, 사냥으로 생계를 잇던 아프리카 흑인들은 야생동물 공원의 값싼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다. 공원의 소유자는 자연상태에서 야생 동물을 관람하는 사파리 관광과 공원 내 동물의 사냥 허가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챙겼다. 이 중 사파리 관광은 오늘날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으로 발전되어 연구의 한 분야가 되었으며, 그 효과와 더 나은 방향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age & Dowling 2001).

반면 트로피 헌팅과 그 수익으로 얻는 효과는 논란의 대상이다. 돈이 없는 흑인 아프리카 인들에게는 밀렵이라는 이름으로 금지된 사냥은, 사냥할 권리를 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백인들에게는 트로피 헌팅 혹은 스포츠 헌팅 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되었고,<sup>1)</sup> 야생 동물의 개인 소유자나 정부는 트로피 헌팅을 통해 오늘날까지 수익을 얻고 있다 (Duffy 2014, 829-830). 최근 미국의 한 치과의사 (Walter Palmer)가 짐바브웨 국립 공원 (Hwange National Park) 안에서 보호받고 있던 사자를 먹이로 피어내어 트로피 헌팅의 대상으로 사냥한 사건<sup>2)</sup>이 발생한 후, 트로피 헌팅과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대해 학자 및 관계자 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 된 바 있다 (Ingraham 2015; Wilson-Spath 2015). 이는 단순히 트로피 헌팅이 윤리적인가에 관한 이슈를 벗어나,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인 기원과 밀렵과의 관계에서 보면 더 큰 의미를 갖는다.<sup>3)</sup>

야생동물 보호 구역의 이러한 친-자본주의적인 탄생은 비단 아프리카 뿐 만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Perelman 2007).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 구역

- 
- 1) 미국의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역시 오늘날 우간다 지역의 한 야생동물 보호 공원에서 지금은 멸종된 북부 흰 코뿔소 9마리를 사냥했다 (Walker & Walker, 2012, p. 21). 현재 코뿔소는 멸종위기의 동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트로피 헌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자의 경우, 현재 매년 600마리의 아프리카 사자가 합법적인 트로피 헌팅에 배당되어있으며, 이 중 64%의 트로피, 즉 사자의 머리나 사체의 전부가 미국으로 운송된다 (Ingraham, 2015).
  - 2) 미국인 Walter Palmer 짐바브웨의 국립 공원 (Hwange National Park)의 사자를 갓 죽인 동물을 미끼로 국립공원에서 빼냈다. 당시 이 사자는 연구를 위한 추적용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추적용 목걸이를 하고 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짐바브웨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이 미국인은 우선 사자를 석궁으로 쏘 상태에서 40시간 동안 이 사자를 쫓아다니다가 총으로 쏘아 죽였다. 사냥 후의 기념촬영에서는 추적용 목걸이를 풀어 놓고 나중에 추적 목걸이를 없애려 했으나 후에 발각되었다. 이 미국인은 이 사냥을 위해 \$50,000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실 (Cecil)이라는 이름의 이 사자는, 검은 갈기를 지닌 희귀한 종으로, 짐바브웨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였으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사자를 연구 중이었다 (Wilson-Spath, 2015).
  - 3) 이런 트로피 헌팅을 불법화 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분위기와 함께, 미국의 몇몇 대형 항공사들이 트로피 헌팅의 재물이 된 동물의 신체 부위를 자신들의 항공기에 신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BusinessDay 2015; Gajanan 2015). 2015년 5월과 6월에 에미레이트 항공사와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자 항공기에 아프리카 동물의 신체 및 신체 부위를 신지 않겠다는 발표에 이어, 미국의 3개 항공사(American Airlines, Delta Airlines, United Airlines) 역시 사자 세실 사건 이후 아프리카의 빅 파이브 (Big 5: 사자, 코끼리, 코뿔소, 표범, 버팔로)를 운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많은 서구 미디어는 아직 트로피 헌팅 및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백인소유의 동물 보호구역에서의 수익이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옹호하고 있다 (Allen 2015).

을 정하고 그 공원을 관리하고, 또 그 공원을 즐기는 집단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아니라 인종적으로 백인 계층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본주의적 측면에 인종적인 의미가 추가된다. 초기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즐길 만한 경제적 수단이나 법적인 지위가 없었던 남아프리카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생동물보호 구역에 대한 박탈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Lunstrum (2014, 821)은 밀렵에 가담한 아프리카 흑인들과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라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던 땅과 생계를 잇는 수단이던 사냥에서 박탈당한 흑인들의 오랜 역사와 심리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연 관람이나 야생동물 공원을 방문하는 등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소비는 단순히 경제력이 늘어난다고 함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의 노출이 축적 되어야 늘어난다. 즉, 공원의 탄생과 동시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법적, 경제적으로 야생 동물 보호 공원이라는 여가 소비에서 제외되었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소비를 쌓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크루거 국립 공원의 역사는 남아공 국립 공원의 역사를 대표한다. 남아공에 위치한 크루거 국립 공원은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보호구역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원이다. 아프리카 최초의 근대 야생동물 공원인 크루거 국립 공원은 트란스발 (Transvaal)<sup>4)</sup>의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 (Paul Kruger)에 의해 1894년 처음 문을 열었으며,<sup>5)</sup> 아프리카 전역의 다른 야생동물 공원과 마찬가지로 공원을 오픈 할 당시 공원 내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그들 조상의 땅에서 내쫓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계를 위해 지속해온 사냥을 밀렵으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 (Ellis 1994, 54-55). 아직까지도 남아공 야생동물 보호 구역 관광의 주된 소비자는 남아공 백인이며 흑인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간 오늘날에도 크루거 국립 공원을 비롯한 야생동물 보호 공원에서 흑인 방문객을 만나는 것은 공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표범이나 치타를 만나는 것보다 더 흔치 않은 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심리적 관점으로 남아프리카의 밀렵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아프리카 흑인 그룹이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라는 여가 상품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밀렵 형태로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

야생동물 보호 구역의 초창기에는 인종적, 경제적으로 다소 분명했던 밀렵에 대한 정의는 아프리카 식민 이후의 정치사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좀 더 애매해 진다. 현재 각국의 정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밀렵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이후 빈번히 일어난 아프리카의 전쟁 및 내전에서 반군 뿐 아니

4) 남아공의 네덜란드계 백인인 아프리칸너들은 오늘날 케이프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던 영국의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 1830년대 오늘날 남아공의 림포포, 하우텡, 음푸마랑가 지역으로 대거 이동한다. 이들은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은데벨레 종족을 내쫓고 이 지역을 차지한 후 Transvaal 국가의 독립을 선포했으나 후에 1910년 남아프리카연방의 한 주(province)로 다시 편입된다.

5) 1894년 사비 야생동물 보호구역 (Sabi Game Reserve)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후에 1926년 크루거 국립 공원으로 확장하였다.

라 정부군의 중요 수익원으로 이용되었다. 우간다 반군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내전 재원 충당으로 고릴라를 비롯한 야생동물 밀렵을 이용했으며, 잔혹하기로 유명한 무력단체 LRA (Lord's Resistance Army)의 리더 조세프 코니 (Joseph Kony)도 밀렵을 통해 재원의 일부를 확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uffy 2014, 831).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정부 역시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지에서 밀렵으로 얻어진 코끼리의 상아나 코뿔소의 뿔을 극동의 판매업자에게 파는 중간 거래로 1970-80년 대에 많은 수익을 냈으며, 당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는 남부 아프리카 야생동물 불법 거래의 중심지였다 (Ellis 1994).

대부분의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전이 종식되고 억압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물러난 오늘날, 정부 내부의 개인 수준의 부패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아프리카 정부는 더 이상 밀렵의 행위자가 아니라 밀렵 억제에 행위자로 대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종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관광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 생태계에 보탬이 된다는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많은 경우 원조 공여국의 재원과 기술적 자원에 의지해 야생 동물 공원 및 생태계의 보호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다 (du Toit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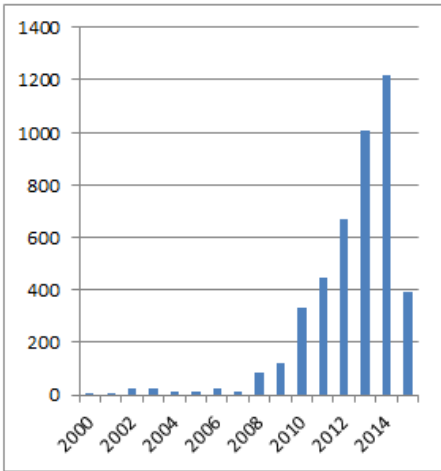
요약하면, 남부 아프리카의 야생동물 공원의 역사는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비교적 최근까지 진행되었던 오랜 백인 지배역사와 그에 수반된 흑인의 심리적 박탈감 그리고 사회 구조 및 여가 소비 습관의 고착화 등을 통해 오늘날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밀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오늘날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동물 보호 그리고 밀렵의 국제 정치 경제를 코뿔소 밀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2.2 코뿔소 밀렵의 국제정치경제

코뿔소는 사바나 평원에서 발견되는 무게가 2톤에 육박하는 초식동물로, 평균 수명은 35-40세 정도이다. 아프리카에는 검은 코뿔소와 흰 코뿔소, 두 종의 코뿔소가 있는데, 검은 코뿔소는 1960년 이후 개체수의 97.6%가 사냥과 밀렵으로 사라졌으나 남아공에서는 아직 두 종류의 코뿔소 모두 서식하고 있다 (African Wildlife Foundation 2015). 따라서 다른 사파리 여행 국가들보다 코뿔소를 보기 쉽다는 점은 남아공 관광 산업의 큰 경쟁력으로 여겨진다 (inews24 2013). 관광업이 남아공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남아공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25% 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더 큰 의미를 지니는데, 남아공 관광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는 남아공의 주력 산업인 광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 보다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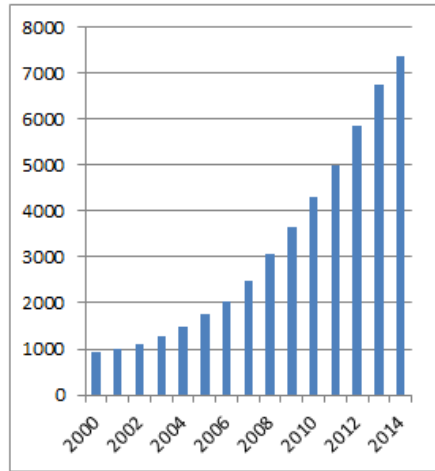
이런 배경에서 코뿔소의 개체수가 밀렵으로 감소하는 것은 남아공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아공에서 밀렵으로 희생되고 있는 코뿔소의 개체 수는 2000-2001 년까지만 해도 6-7 마리 정도에 그쳤고, 2007년 말까지 남아공은 성공적으로 아프리카 검은 코뿔소의 35%, 흰 코뿔소의 93% 를 국가 및 개인 소유의 야생동물 보호 공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코뿔소 서식지였다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2010, 2). 그러나 밀렵은 2008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333 마리, 그리고 작년 2014년 한 해에만 1,215 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집계된다 (표 1). 올해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되어, 올해 4월까지 이미 393마리의 코뿔소가 살해당했고 이중 290건이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발생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16년부터 남아공의 코뿔소 개체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남아공 코뿔소 역시 다른 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밀렵으로 인해 멸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unstrum 2014, 821).

표 1. 밀렵으로 희생당한 코뿔소의 개체 수, 남아공, 2000-2015\*  
(단위: 마리)



\*2015 년 4 월 30 일까지 통계  
자료: 남아공 환경부, 2015

표 2. 중국 일인당국민소득 변화, 2000-2014  
(단위: US\$)



자료: 세계은행, 2015

남아공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코뿔소 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남아공의 국가이미지와 에코 투어리즘에 큰 위협”을 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코뿔소와 연관된 직종에 고용된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2010, 4). 또한 남아프리카 지역적으로도, 남아공의 코뿔소 밀렵 문제는 남아공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남아프리카 지역의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되어 있다 (Capital 2015).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SADC는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밀렵은 불법 지하자원 채굴과 같다는 자세로 공동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고 있다 (Knight & Emslie 2013).

역사적으로 보면 남아프리카 지역은 코뿔소가 멸종되기도 한 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최근까지는 비교적 온전히 코뿔소를 보전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SADC의 코뿔소 관리 팀 (SADC Rhino Management Group)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코뿔소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늘었는데, 이는 생태관광 (ecotourism), 사냥, 동물의 판매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또한 남아프리카는 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이용에 대한 철학이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부가 개인소유의 야생동물 보호지역과 사유지역내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사유지 내의 객체 수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다. 실지로 현재 남아공 전체 코뿔소 객체 수 약 2만 700 마리 중 4분의 1의 코뿔소가 개인 소유의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서 살고 있고, 이 개인소유의 코뿔소 객체 수 만으로도 이미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전체의 코뿔소 객체 수를 합친 것 보다 많다. (Knight & Emslie 2013).

역사적으로 남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자연 동물 보호를 해왔지만, 현재 크루거 국립 공원은 상업적으로 벌어지는 코뿔소 밀렵이 세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Lunstrum 2014, 817). 코뿔소 밀렵 증가 추세는 코뿔소 뿔의 가장 큰 소비 시장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2, p.13). 코뿔소의 뿔은 베트남과 중국지역에서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치료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 서적인 신농본초경 (神農本草經)은 코뿔소의 뿔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으며, 열병이나 해독에 좋다고 나와 있다. 고대 중국에서 코뿔소 뿔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믿어졌으며 왕족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매우 높았다. 이는 동주 (東周) 왕조 (770 - 256 BC)시절 중국 내의 코뿔소 객체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멸종으로 이어져, 서한 (西漢) 시대 ((206 BC - AD 24)에 이미 수마트라에서 코뿔소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Walker & Walker 2012, 3-4).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는 코뿔소 뿔의 주성분은 인체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성분이기도 한 케라틴일 뿐이라고 설명하는데, 케라틴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 외에는 별다른 약효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뿔소 뿔에 대한 수요는 베트남과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중산층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밀렵꾼들은 주로 코뿔소 뿔의 주된 소비시장인 동아시아의 범죄조

6) 남아공의 한 대학 (Stellenbosch University)에서는 코뿔소 밀렵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같은 케라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향의 의미로 코뿔소 뿔의 주 소비국인 중국에 보내기도 하였다.

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밀렵을 자행하는데, 최근에도 베트남 경찰이 31개의 코뿔소 뿔을 운반하던 중인 베트남 범죄인을 검거한 바 있다 (Tuoi Tre News 2015). 베트남의 암시장에서 코뿔소의 뿔은 그램당 133 달러에 거래되는 고가의 상품으로 금 1그램의 최근 시세가 약 36 달러인 것에 비교해 보면,<sup>7)</sup> 코뿔소 뿔은 금이나 마약 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상품성은 코뿔소 밀렵에 관여하고 있는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고도화를 설명해준다.<sup>8)</sup> 코뿔소 밀렵에 관여하고 있는 범죄 조직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과 마찬가지로의 조직으로 경찰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하여 국경을 자유자재로 들락거리면서 밀렵을 자행하고 유유히 도망간다 (The Guardian 2015). Lunstrum (2014, 821)의 인터뷰를 통한 조사에 의하면, 밀렵에 관여하는 이들은 일의 수준에 따라 1킬로그램 당 1000 달러에서 9000달러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며, 일의 수준 및 현지 경제 수준에 비해 보상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밀렵의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는 없다. 남아공의 환경부 장관인 에드나 모레와 (Edna Molewa)의 발표에 의하면, 약 6,000명의 인원이 이 밀렵 범죄조직에 연관되어 남아공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nsoor 2015).

이 밀렵꾼의 80-90% 는 모잠비크 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Appel 2013). 모잠비크의 가자 (Gaza) 지역도 한때 코뿔소의 서식처였으나 밀렵과 내전 등으로 모잠비크 내에서 야생 코뿔소는 멸종된 상태이다 (Capital 2015,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무기 및 총 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보다 가벼운 형량의 범죄이다. 이 밀렵꾼들은 크루거 공원의 국경을 통해 들어온다. 모잠비크는 크루거 국립공원과 울타리 (fence)수준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울타리의 목적은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기 위함이다. 즉 밀렵꾼을 막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이 국경을 통해 밀렵꾼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도 공원을 지키는 경찰들과 밀렵꾼 사이에 두 건의 총격전이 벌어져 미디어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이 두 곳 모두 모잠비크 국경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다 (Mansoor 2015).

크루거 국립공원이 닿아 있는 남아공-모잠비크 국경은, 코뿔소 밀렵과 관계된 오늘날 뿐 아니라, 1975년 이래로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민감한 전략지대였다 (Ellis 1994, 67). 1975년 모잠비크에서는 당시 남아공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집단인 모잠비크 자유전선 (the Frente de Libertação de Moçambique: FRELIMO)이 권력을 잡게 된다. 국제 정치적으로 친소련파인 FRELIMO가 남아공의 수도인 프레토리아 (Pretoria)와 두어 시간 밖에 떨어지지 않은 모잠비크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은 당시 남아공 백인 정부에게는 큰 위협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FRELIMO의 집권이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던 남아공 공산당 (South

7) <http://goldprice.org/>. 검색일 2015년 8월 14일

8) 범죄조직의 세계화는 야생동물 보호에는 더욱 위협적인 요소이다. 코뿔소 뿔을 포함한 전세계 불법 야생동물 식물 거래량은 매년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Mguni 2015).

African Communist Party)과 후에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인수한 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의 무력저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당시 모잠비크 FRELIMO정부의 반군인 RENAMO (Resistência Nacional Moçambicana)를 군사적으로 후원하면서 FRELIMO 정권을 흔들었다.<sup>9)</sup> 모잠비크 정부를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모잠비크 국경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이 남아공 정부의 불안정화 전략의 중요한 도구였는데, 이 때 남아공 정부는 크루거 국립공원의 남아공-모잠비크 국경을 주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한다. 이 국경은 지형학적으로 요충지 일 뿐 아니라, 국경의 많은 부분이 뚫려 있는 상태여서 중요한 무기나 코뿔소의 뿔이나 코끼리의 상아, 마약류와 같은 반군에게 재원이 되거나 모잠비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물품 들을 이 국경을 통해 다소 수월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Ellis 1994, 67-68).

이렇게 과거에 남아공 정부가 모잠비크 정부를 흔들기 위해 이용했던 이 크루거 국립 공원의 국경은 오늘날 역으로 남아공 야생 동물 밀렵이나 모잠비크 출신 불법 이민자의 남아공 유입 등의 루트로 이용되면서 남아공 정부에게 고충을 주고 있다. 모잠비크의 무장범죄조직들은 주로 크루거 국립 공원을 중심으로 남아공 국경 근처에서의 코뿔소 밀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Times Live 2015). 최근 모잠비크 인들을 중심으로 한 밀렵의 규모는 더욱 커져서, 지난 달 코뿔소 밀렵 관련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로, 65개의 코뿔소 뿔이 모잠비크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의 집에서 발견된 바 있다 (Reuter 2015). 경찰이 압수한 이 뿔들은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몇 일 후 다시 전량 경찰서에서 도난 당한다. 이는 경찰 및 보안 당국 내부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경찰이나 국립공원 관계자 및 내부인의 부패는 남아공의 코뿔소 밀렵 대응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크루거 공원에서 코뿔소의 뿔을 지니고 모잠비크 국경을 통해 빠져나간 밀렵꾼들은 모잠비크 국경관리자 잡히더라도 대부분 뇌물을 제공하고 풀려난다 (Appel 2013).

코뿔소 밀렵과 관련해 내부 관계자의 부패는 최근 남아공 국립공원에서든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sup>10)</sup> 남아공 환경부 직원이나 학생들에게 크루거 공원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프리젠테이션 및 설명 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는 크루거 공원의 한 직원은 “강의나 설명을 요구하는 단체의 성격에 맞추어 크루거 국립공원의 이윤이 어떻게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지, 사자나 코끼리의 생애는 어떠한

9)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흔드는 것은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 즐겨 사용한 전략이었는데, 남아공 정부는 모잠비크 FRELIMO 정권 뿐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을 넘겨줘야 했던 ANC와의 협상에 임할 때도 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략을 즐겨 이용했다.

10) 현지 조사 중 남아공에서 인터뷰에 응한 국립공원 관계자 모두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익명을 요구하는 그들의 다소 긴박한 태도에서 코뿔소 밀렵이라는 주제가 남아공에서는 부패 및 국가 이미지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사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 단 한 명도 코뿔소 밀렵과 관련해 본인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으며, 한 명의 응답자는 자신의 이름이 외부에 나가면 “해고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크루거국립공원환경부직원 2015).

지 등 다양한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지만, 코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라고 말한다 (크루거국립공원환경부직원 2015). 이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크루거 국립공원에서는 화력으로 무장한 코뿔소 밀렵 대응팀을 제외하고는 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누구도 코뿔소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sup>11)</sup> 코뿔소 밀렵에 대한 무력 대응은 초기에는 명예 대응팀 (Honorary Rangers)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현재는 남아공 정부가 국립공원에 파견한 군인 출신의 국립공원대응팀 (SANPark Ranger)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한 명예 대응팀 조직원에 의하면 인터뷰 일주일 전에도 수 명의 크루거 공원 직원과 대응팀 조직원이 코뿔소 밀렵에 협조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명예대응팀 2015).

요약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코뿔소 밀렵은 단순히 멸종 위기의 동물을 죽이는 문제가 되는 행위로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측면 뿐 그리고 현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국제, 지역, 범죄, 정치, 경제, 빈곤 등이 다층적으로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코뿔소 밀렵의 여파 역시 단순히 한 종의 멸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층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본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뿔소 밀렵 대응의 추이를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함께, 본 장에서 연구된 역사적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적 원인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한다.

### 3. SADC의 국경관리와 코뿔소 밀렵의 관계

#### 3.1 현재 주된 대응 방식: 무력대응

코뿔소 밀렵을 억제하는 데에 있어 남아공 정부의 지속적인 실패는 역시 SADC 회원 국가이기도 한 보츠와나 정부의 강경 대응과 종종 비교된다. 보츠와나는 남아공, 나미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SADC의 회원국으로, 10년 전 26마리에 불과하던 자국 내 코뿔소의 개체 수를 올해 그 여섯 배인 153 마리로 늘리는 데 성공했으며, 2013년 마지막으로 보고 된 이후 보츠와나 국경 안에서 코뿔소가 살해된 보고는 없다 (Mguni 2015). 보츠와나의 이런 성공은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11) 크루거 국립 공원 무력 대응팀의 남부 지역 본부장에게 (전체 크루거 공원의 코뿔소의 6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공원 남부 지역은 크루거 공원에서 가장 삼엄하게 경계되는 곳이며, 크루거 공원 무력 대응팀의 본부도 남부에 있다) 인터뷰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연결되지 못했다.

1,215 마리의 코뿔소를 밀렵꾼에게 잃은 남아공의 케이스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이다.

2015년 남아공은 200마리의 자국 코뿔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츠와나로 이송했는데, 무력 대응을 지지하는 이들은 보츠와나의 성공의 원인으로 무력 강경 대응을 꼽는다. 보츠와나는 코뿔소를 포함한 야생동물 보호하는 데 있어 “shoot-to-kill”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즉, 공원의 밀렵 대응팀이 밀렵꾼을 발견했을 때 밀렵꾼이 총을 갖고 있다면, 대응팀은 단지 밀렵꾼을 체포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살을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허용된다 (Hoeltherhoff 2015). 이는 코뿔소가 이미 살해당한 후 밀렵꾼을 체포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밀렵꾼을 사살함으로써 코뿔소가 죽기 전에 대응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정책이다. 야생동물 보호에서 무력 사용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일이지 않지만, 1980년 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무력 대응의 강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Lunstrum 2014, 819). 이러한 강경대응은 보츠와나 뿐 아니라 콜롬비아, 네팔, 인도네시아,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주된 야생동물 보호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Henk 2006).

보츠와나 수준의 강경 대응은 아니지만, 남아공 역시 2012년 퇴역한 군인인 요한 유스테 (Johan Jooste)를 크루거 국립공원 코뿔소 보호 작전의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코뿔소 보호에 있어서 무력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SANPark 2012b). 밀렵에 대한 무력 대응은 남아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남아공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코뿔소를 지키는 공원 대응팀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금 모음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한다. 크루거 공원의 한 명에 공원 감시인 역시 남아공의 대응팀은 오직 밀렵꾼이 먼저 감시인들을 향해 먼저 공격을 한 후에만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무력대응은 코뿔소를 지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응팀의 생명도 위태롭게 한다며, 밀렵꾼이 먼저 공격하지 않아도 대응팀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보츠와나 식의 강경 대응을 남아공에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명예 대응팀 2015).

그림3: 밀렵에 희생되는 코뿔소의 사진



자료: 남아공 크루거 국립 공원, 코뿔소 흉에 전시되어있는 사진 (Berg-en-Dal 캠프, 2015. (저자편집))

이렇게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영토와 자연 유산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력화 즉, “green militarisation”는 현재 밀렵꾼과 화력으로 무장한 공원 대응팀 사이에 화력 경쟁을 유발하는 다소 위험한 접근 방식일 수 있다 (Lunstrum 2014). 뿐 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크루거 국립 공원에서 무력대응은 그 효과가 크게 없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윤리에 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와 무장한 명예 공원 감시팀은 뿔이 잘려나간 채 죽어있는 코뿔소의 사진과 같은 참혹하고 단순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무력대응을 정당화한다(그림 3). 하지만 2008년 이후 5년동안 코뿔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약 300명의 밀렵꾼으로 추정되는 민간인들이 적합한 법적인 절차 없이 크루거 국립 공원 현장에서 바로 사살당했다는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지 않고, 오히려 야생동물 보호의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Duffy 2014, 828; Rakoma & Mampa 2013). 남아공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4월부터 일 년 동안 코뿔소 밀렵과 관련해 70건의 법적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 관련자들 중 85명은 유죄로 판명되었지만, 13명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SANParks Times 2014, 5). 남아공에서 보츠와나 방식으로 밀렵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대응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었다면, 몇 마리의 코뿔소를 더 보호할 수 있었겠지만, 그 대신 무죄로 입증된 이 13명의 시민의 생명도 적합한 법적 절차 없이 코뿔소 밀렵 방지의 성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렵에 대한 무력 대응은 야생동물 보호 공원이 만들어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큰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 방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 대응이 윤리적인 측면, 야생동물 보호 공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박탈당한 토착 흑인들의

사냥에 대한 권리, 공원 야생동물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접근 등에 대한 고찰 없이 주된 밀렵 대응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위험한 선택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어지는 장에서 크루거 공원을 경계로 하는 남아공-모잠비크의 국경에 초점을 맞추어 코뿔소 밀렵의 원인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3.2 국경 관리의 개선을 통한 밀렵 방지

Duffy (2014, 825)는 최근의 남아공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코뿔소 전쟁 (rhino war)’은 코뿔소 밀렵에 얽혀 있는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치 경제의 문제를 심각하게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무력대응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와 같은 밀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무력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계 정치 경제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뿔소 밀렵에의 정치 경제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본 논문의 2장에서 보았듯이 코뿔소 밀렵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매우 깊은 사항이다. 또한 긴 역사를 차지하고 현재 이 시점만 본다면 하더라도 코뿔소 밀렵을 중심으로 국제, 국내, 정치, 군사, 경제, 범죄, 부패, 빈곤, 인종, 소외감 등의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의 근본을 찾아 해결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이상적인 대안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해결책이다. 경제 및 인적 자원의 부족과 정책 의지의 부족, 부패 등으로 코뿔소 밀렵을 방지하기 위한 남아공과 모잠비크 두 국가간의 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범세계적 차원의 협업을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재원이 들 뿐 아니라, 그 과정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는 접근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방법으로, 이미 멸종위기의 동물에 속해 있는 코뿔소의 밀렵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남아공과 모잠비크가 속해있는 지역기구인 SADC의 역내 그리고 남아공의 국경관리에서 문제점을 찾고, 코뿔소 밀렵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안으로 SADC의 역내 국경관리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크루거 국립공원을 둘러싼 국경은 점점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난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경 관리의 문제를 살펴보기보다는, 국경 관리를 위해 권고되는 가이드라인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을 살펴본다. 크루거 국립공원을 둘러싼 국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서구 국가들의 원조로 진행되고 있는 SADC의 국경 관리 가이드는 지역 경제의 통합에 과도하게 무게를 둬으로써 국경을 가로질러 행해지는 밀렵 및 안보와 같은 문제를 간과

하고 있다: 둘째, EU의 국경관리 방식을 지향하는 SADC의 국경관리 원칙은 여러 야생동물 보호국역을 국경 사이에 끼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셋째, 남아공과 모잠비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SADC 국가들은 국경의 보안만을 책임지는 전담 기구가 없는데, 이는 역내 회원국 내 정치적 안정 뿐 아니라 크루거 국립 공원과 같은 접경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보기에 앞서, 아프리카 국경의 탄생 배경을 살펴 보는 것은 SADC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기구의 국경관리에 대한 접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국경의 근본적인 약점은 그 국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은 1865년 베를린 회의에서 식민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인종의 고려 없이 자신들을 위한 행정단위로써 그려졌다. 이후, 탈식민시대 이후 아프리카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존에 그려진 국경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노선을 취했다. 이를 *uti possidetis* 원칙이라고 한다. 아프리카의 정치 엘리트는 식민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경이 흔들릴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uti possidetis* 원칙이 자신들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Englebert & Dunn 2014, 272). 따라서 새롭게 독립국가를 이어받은 아프리카의 정치적 리더들은 아프리카 역사나 부족의 정체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경을 그리는 것을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근대화 이론 (modernisation theory)의 영향으로, 독립된 아프리카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독립과 함께 나라가 근대화되면 전근대적이라고 여겨지던 '부족의 정체성'은 곧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례로 기니의 독립 후 첫 번째 대통령인 세코 투레 (Seko Ture)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삼 사 년 후에는 최근 우리 나라와 우리 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부족 갈등, 종교 갈등 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Spears 2004, 37).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프리카 국경의 문제는 이 국경이 아프리카의 인종적, 역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이 국경이 아프리카의 전통적 정치조직에 비해 지나치게 큰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Spears 2004,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3년에 결성된 the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또한 이 *uti possidetis* 원칙을 받아들였으며 여러 번 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후신인 African Union 그리고 SADC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기구들 역시 국경문제에 관한 태도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남부아프리카의 지역기구인 SADC, 즉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는 1980년에 결성된 SADCC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의 후신으로, 1992년 지금의 SADC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초기 결성될 당시에는 SADCC는 남아공의 백인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대항하여, 남부아프리카 경제에서 남아공경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후에 1994년 남아공에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이 물러나면서 남아공이 SADC 에 가입하게 되고, 이로써 SADC은 오늘날까지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기구로 자리잡게 된다.

SADC회원 국가간의 국경은EU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제 원조공여기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CBM) 에 따라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CBM은 공동시장을 지향하는 SADC의 목표에 근거하여 역내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경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SADC 국가들에게 CBM 은 “열린 그러나 잘 통제되고 안전한 국경”을 목표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조화로운 국경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국내/국제적 협업”을 의미한다 (SADC 2011, 11).

그러나 이 CBM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의 국경 관리는 코뿔소 밀렵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경제적 통합에 가장 큰 우위를 두는 CBM은 불법이민, 정치적 불안정, 야생 동물 및 무기와 마약류의 밀렵과 같은 국경 안보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EU는 ‘무역 근대화화 및 무역 진흥을 위한 사업’ (Trade Modernisation and Trade Facilitation Project) 를 통해 CBM 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후원하였다. 자연스럽게 CBM은 경제적인 지역 통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데, CBM은 SADC 역내 국경 관리와 SADC 역외 국경관리를 통해, SADC이 자유무역지역, 공동 관세 구역을 거쳐 궁극적으로 공동 시장 (a common market) 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EU를 비롯한 서구의 원조 공여 국가들은 CBM 가이드를 통해서CBM은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 운송, 관광 그리고 해외 투자를 원활 함으로써 “더 높은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다” 고 제안한다 (SADC 2011, 17). 그러나 여기에서 더 높은 만족을 얻게 되는 고객은 SADC 역내 국경을 이동하며 물자를 수송할 필요가 있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이 대부분으로, 다국적 기업 고객의 더 높은 만족을 위한 국경은 진정한 고객이어야 할 남부 아프리카 인들에게 CBM은 오히려 사회 정치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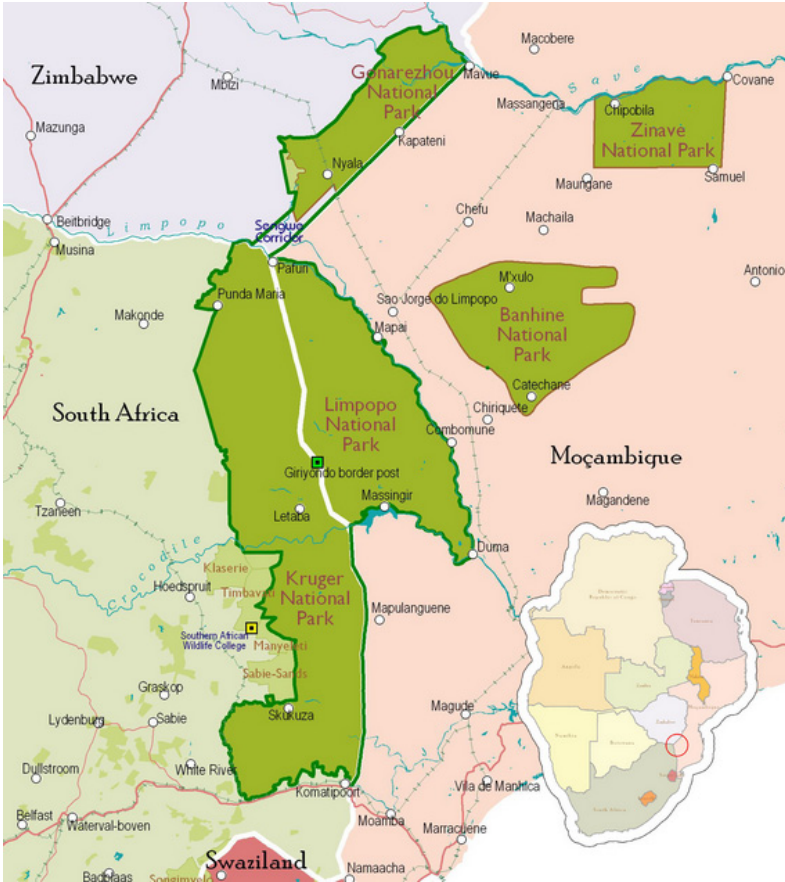
특히 SADC 경제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은 심각하다. 남아공 서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짐바브웨와 모잠비크로부터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더 직업과 더 나은 삶을 찾아 남아공으로 들어가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 불법으로 남아공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루거 국립 공원을 통해서 남아공으로 들어간다 (Jallá 2015; Matias 2015). 실지로 1990년 대, 모잠비크의 경제가 내전(1977-1992)의 결과로 비참한 상황이었을 당시 많은 모잠비크 인들이 크루거 공원을 통해 남아공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쉬운 먹이 (크루거 공원을 통해 남아공으로 들어오려는 모잠비크인)에 맞을 들인 크루거 공원의 사자들이 모잠비크 국경 쪽에서 머물러 있어서 사파리 관광객들이 남아공 쪽에서 사자를 보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크루거 국립 공원의 남아공-모잠비크 간 국경은 동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울타리 수준으로, 이런 우거진 목초나 육식 야생동물과 같은 자연 억제 제재에 의지한 소극적 국경 안보 관리 는 실지로 남아공 정부가 불법이민이나 코뿔소

밀렵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이다 (Jooste 2014, 12). 반면, 많은 남아공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남아공 내의 높은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증오한다. 그 결과 2009년 모잠비크 인을 비롯한 수 십 명이 외국인 혐오 학살(xenophobic attack)에 의해 살해된 바 있으며, 올해 3월과 4월에도 같은 이유로 모잠비크 짐바브웨 인을 포함한 7인이 살해되고 수천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남아공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교통 편을 통해 자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자국민을 잃은 모잠비크를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간에 분노를 유발한다 (Cumbe 2015; Jallá 2015). 코뿔소 밀렵도 같은 경우 이다. 경제적 통합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국경의 안보는 자연에 의지하는 SADC와 남아공 정부의 허술한 국경관리는 SADC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동물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EU를 모델로 만들어진 SADC의 CBM 가이드라인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 여럿 존재하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국경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CBM 가이드 라인을 보면, CBM은 지역의 효과적인 국경 관리를 위해 관련 기구 내의 협력, 관련 기구 간의 협력, 국제적 협력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국경 관리의 기본 구조로 제안한다. EU의 원조와 기술적 조언으로 만들어진 이 'SADC을 위한 CBM 가이드라인'은 위의 세가지 기본 구조 중 국제적 협력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무역, 관광 투자의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 기구와 협업하여 SADC의 국경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난민기구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sation), 국제수역사무국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그리고 다양한 지역 식물 보호 기구들 (SADC, 2011, p. 56). 그러나 이렇게 CBM 가이드라인이 제안하고 있는 국제협력 파트너들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잠입하는 난민 이슈와 같이 유럽의 이해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기구들이며 아프리카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기구는 아니다.

반면 실지로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관광 및 투자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접경 지역 야생 생태계 보호 구역의 보존 및 개발에 관해 협업 수 있는 국제협력 파트너는 가이드라인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프리카 국경의 인위적인 탄생은 아프리카의 생태적 지형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어졌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의 이동 루트로 연결되어 있는 크루거 국립 공원을 포함한 거대 자연 보호구역은 오늘날 인위적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때문에 모잠비크-남아공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접경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불안은 지형적/생태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인위적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야생 동물의 생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국경으로 갈라진 접경 국가들의 사회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림 4



자료: SANPark

그러나 역으로, 국경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야생동물 보호 구역은, 연관된 국가들 간의 통합 국경관리가 제대로 될 경우,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보호해 줌으로써 더 큰 관광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남아공, 모잠비크, 짐바브웨의 정부가 함께 구상 중인 이 ‘확대된 림포포 국경간 공원’ (Great Limpopo Transfrontier Park)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림 4). 세 나라의 국경을 포함하는 사업은 생태적으로는 인간이 만든 국경에 의해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 루트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이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지역 야생동물의 생태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곧 세 국가의 관광 수익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SANPark 2015). 이 사업을 위해 남아공 정부는 크루거 공원의 접경 중 50 km에 이르는 접경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Appel 2013). 그러나 이러한 국경을 가로지르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것은 아프리카인의 이주 및 난민, 마약 거래에 대응하는 것 만큼이나 국제적인 도움과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EU를 모델로 한 CBM은 림포포 사업과 같은 EU나 서구 선진 원조 국가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나 남부 아프리카의 통합과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 '접경 야생동물보호 구역 개발 및 관광 그리고 이를 통한 투자 및 관광객의 촉진'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는 해당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게 이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기술적 자원의 부재, 그리고 그 부재로 인한 인한 정치적 의지의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 정부에 국경관리전담 기구가 없다는 점 역시 효과적인 국경관리와 코뿔소를 포함한 야생 동물 밀렵 방지에 악영향을 준다. 현재 크루거 공원의 코뿔소 밀렵 억제 대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직 군인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화력으로 무장한 공원 대응팀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윤리의 문제 이전에 밀렵꾼과 공원관리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응방식 일 뿐 아니라, 내부 부패에 취약하며, 코뿔소의 밀렵을 코뿔소 살해 이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효과가 없다. 여타 SADC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남아공과 모잠비크 양국 모두 국경관리 전담 기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sup>12)</sup> 양국 정부 모두 코뿔소 밀렵의 심각성과 밀렵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성공적인 야생동물 보호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Business Connect 2015, 6-9). 이 공통된 인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이를 국경관리를 책임지는 본부를 만들 뿐 아니라, 현재 코뿔소 밀렵이 부른 위기를 양국의 국경관리 본부간에 협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CBM 가이드라인 역시 SADC 회원국들의 대부분이 국경관리 전담 기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조언하지만, CBM은 국경관리 전담기구를 대외 무역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산하에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권고한다 (SADC 2011, 27). 그러나 이 권고 역시 아프리카의 이해가 아니라 서구의 경제적 편의를 위주로 한 조언이다. SADC의 국경관리 가이드라인의 구상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술적으로 조언을 제공한 서구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이드라인에서 SADC에게 제공한 조언과는 달리, 자국의 국경전담기구를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산하에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경 관리 전담기구(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상무부가 아니라 (Department of Commerce) 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 Land Security) 산하에 있으며 영국의 국경전담기구 (UK Visas and Immigration) 역시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아니라 내무부 (Home Office) 산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DC국가들의 국경관리는 대외 무역을 관장하는 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국경의 안보도 더불어 강화될 수 있다는 이들의 조언은 SADC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이해를 고려해서 제공되었다기보다는 서구

12) SADC회원국 중 잠비아와 짐바브웨만이 국경관리 전담 기구를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다 (SADC 2011).

원조 공여국 내지는 서구 산업 선진국의 이해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SADC이 회원국간의 국경관리 원칙으로 삼고 있는 CBM은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에 과다하게 치우친 국경관리방식으로 남부아프리카에 인명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코뿔소 밀렵이 그 손실의 대표적인 예다. 뿐 만 아니라 EU를 모델로 만들어진 SADC을 위한 CBM은 서구의 이해관계에 더 적합하게 구상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간 국경을 포함하는 지역에 거대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는 남부아프리카지역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SADC 국가들, 특히 남아공과 모잠비크가 코뿔소의 밀렵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경 관리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부서가 CBM가이드라인의 구상대로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부서의 관리하에 만들어진다면 코뿔소 밀렵 뿐 아니라 국경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남부 아프리카의 다양한 사회, 정치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기 힘들 것이다.

## 4. 나가며

코뿔소 밀렵은 단순히 한 종의 생물학적 멸종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정치, 경제, 사회적인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 거주하기 시작한 유럽인들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에 살고 있던 아프리카 인들을 이주시키면서, 경제력이 있는 서구의 관광객을 위한 트로피 헌팅은 허용되었지만, 생계를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사냥은 이때부터 밀렵으로 규정되어 불법행위로 금지 되었다. 이러한 박탈의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흑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코뿔소의 밀렵에 새로운 이해를 제시해준다. 코뿔소 밀렵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런 통시적인 이해와 더불어 오늘날 벌어지는 코뿔소 밀렵의 국제 정치 경제의 복합적인 접근이 역시 필요하다. 코뿔소 뿔의 주된 소비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인 성장은 코뿔소의 뿔을 금이나 플래티넘 보다 더 비싼 '상품'으로 변신시켰고, 이는 남아공-모잠비크 지역의 내전 및 반군의 역사,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종결, 내전 이후 모잠비크의 경제적 난관, 남부 아프리카의 부패 등의 사항들과 맞물려 코뿔소 밀렵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밀렵꾼에 대한 무력 대응을 주된 대응 전략으로 삼고, 강화된 화력을 이용해 밀렵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 전략은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밀렵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제 정치적으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처해야 코뿔소 밀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Duffy (2014)의 주

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제 경제 정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응하는 것은, 그 과제가 국제적으로 협력을 요하는 복잡한 일이라거나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결책으로 멸종 위기의 동물인 코뿔소의 밀렵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단기 적인 해결책으로 남부아프리카 역내 국경관리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SDAC이 국경관리에 가이드로 삼고 있는 CBM은 서구 원조 공여국 및 무역 선진국의 이해에 더욱 적합한 무역관리 가이드라인이다. 무역활성화와 공동 경제시장의 효율성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CBM은 국경관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회, 정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아공 크루거 국립공원의 코뿔소 밀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관광수입의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다시 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 이는 역내 공동시장의 형성을 통해 역내 경제를 살린다는 CBM의 궁극적인 목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EU를 모델로 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접경지대에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국경관리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접경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개발하여 거대 지역 관광자원으로 창출할 수 있는 남부아프리카의 지역 경제 개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남아공과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국경관리전담기구를 만들어 코뿔소 밀렵 대응, 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사업 등에서 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첫 단계일 수 있지만, 그 기구는 CBM의 조연대로 대외무역관장 기구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의 안보나 환경, 그리고 지역 통합 사업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기구의 산하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뿔소 밀렵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의 문제 혹은 그 해결에 멈추지 않는다. 아프리카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 역시 오랜 내전으로 인해 반군단체 및 빈곤에 허덕이는 민간인들의 밀렵 및 포획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고릴라의 생태 지역이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많은 밀렵꾼이 접경하고 있는 우간다를 통해 잠입한다. 본문에 언급한대로 아프리카는 대륙 내에 많은 야생동물 보호 구역이 현재 내전 및 식량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에 걸쳐 있다. 본 논문은 남아공의 크루거 국립공원의 사례로 아프리카 국경의 역사와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접경 지역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 및 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러 제약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접경 지역 자연 보호구역을 위한 국경관리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African Wildlife Foundation. 2015. *Rhinoceros*. Available at: <https://www.awf.org/wildlife-conservation/rhinoceros>(검색일: 2015. 8.2).
- Allen, Charlotte. 2015. Why Allowing Trophy Hunting is Good for Endangered Species. *Los Angeles Times*, 5 August
- Appel, Michel. 2013. Fresh Calls for New Border Fence. *The New Age*, 22 April
- Babbie, Earl. 2007.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1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usiness Connect. 2015. Biofund: Moçambique Ganga Fundação para Protecção da Natureza. *Business Connect*, July, pp. 6-9.
- BusinessDay. 2015. Major US Airlines End Trophy Hunter Shipments after Cecil Outcry. *BusinessDay*, 4 August
- Capital. 2015. On the Bottom. *Capital Magazine, Publicação mensal da Mozamdia*, July, p. 14.
- Cross-border Initiative. 1992. *Cross-border Initiative: Eastern and Southern Africa and Indian Ocean*. Harare: Workshop to Facilitate Cross-Border Trade, Investment and Payments in Eastern and Southern Africa and the Indian Ocean.
- Cumbe, Belizario. 2015. South African Dream Turns into a Nightmare. *Capital*, July, pp. 40-41.
- Demartment Environmental Affairs, 2015. *Minister Edna Molewa to hand over forensic trailers to assist in rhino poaching investigations*. Available at: [https://www.environment.gov.za/mediarelease/molewa\\_handover\\_forensictrailers](https://www.environment.gov.za/mediarelease/molewa_handover_forensictrailers) (검색일 2015. 7.28).
-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2010. *National strategy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rhinoceros populations in South Africa*. Pretori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 du Toit, R. 2006. *Guidelines for Implementing SADC Rhino Conservation Strategies: SADC Regional Programme for Rhino Conservation*. Harare: WWF-SARPO.
- Duffy, Rosaleen. 2014. "Waging a War to Save Biodiversity: The Rise of Militarized Conservation." *International Affairs*, 90(4), pp. 819-834.
- Ellis, Stephen. 1994. "Of Elephants and Men: Politics and Nature Conservation in South Afric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0(1), pp. 53-69.
- Encyclopaedia Britannica, *Transvaal*. Available at: <http://www.britannica.com/place/Transvaal> (검색일 2015. 8.22).

- Englebert, Pierre. & Dunn, Kevin. 2014. *Inside African Politics*. Cape Town: UCT Press.
- Gajanan, Mahita. 2015. Cecil the Lion's Death Prompts Calls to Ban Trophy Hunt Imports to US. *The Guardian*, 28 July
- Henk, Den. 2006. "Biodiversity and the Military in Botswana." *Armed Forces & Society*, 32(2), pp. 273-291.
- Hoelterhoff, Manuela. 2015. Junk Drug Craze Means Three Dead Rhinos a Day. *Bloomberg*, 9 July
- inews24, 2013. Rhino Poaching Threatens Tourism, Economy. *inews24*, 22 September.
- Ingraham, Christopher. 2015. *Rich American Tourists Kill Hundreds of Lions Each Year, and It's All Legal*. Available at: <http://www.washingtonpost.com/news/wonkblog/wp/2015/07/29/rich-american-tourists-kill-hundreds-of-lions-each-year-and-its-all-legal/> (검색일 2015. 8. 2).
- Jallá, Nasser. 2015. [인터뷰] (2015. 7. 24).
- Jooste, Johan. 2014. *Environmental Assent Management*. Available at: <http://www.kallman.com/shows/usa-safrica-symposium-2014/Africa-Border-Surveillance-and-Anti-Poaching-Symposium-2014-Information.php> (검색일 2015. 8. 13).
- King, Nigel. 2004. Using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In: C. Cassel & G. Symon, eds. *Essential Guide to Qualitative Methods in Organizational Research*. London: SAGE, pp. 11-22.
- Knight, Michael. & Emslie, Richard. 2013. *Rhino Conservation Strategy, SADC Rhino Management Group*. Available at: [https://www.environment.gov.za/sites/default/files/docs/sadc\\_rhinoconservation\\_strategy.pdf](https://www.environment.gov.za/sites/default/files/docs/sadc_rhinoconservation_strategy.pdf) (검색일 2015. 7. 21).
- Lee, Margaret. C. 2003.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Cape Town: UCT Press.
- Lunstrum, Elizabeth. 2014. "Green Militarization: Anti-Poaching Efforts and the Spatial Contours of Kruger National Park."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4(4), pp. 816-832.
- Mansoor, Sanya. 2015. Rhino Poaching Suspects under Police Guard in Hospital. *Times Live*, 12 May
- Matias, Néuzio., 2015. [인터뷰] (2015. 7. 23).
- Mguni, Mbongeni. 2015. Rhino Numbers in Botswana Surge as Army Helps Beat Poachers. *Bloomberg*, 13 May.
- Page, Stephan. J. & Dowling, Kingstone. R. 2001. *Ecotourism*.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 Perelman, Marcus. 2007. "Primitive Accumulation from Feudalism to Neoliberalism".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41-66), p. 18.

Rakoma, Ally. & Mampa, Tebogo. 2013. *In Remembrance of those Who Died Protecting our Heritage: Republic of South Africa Defence Department*. Available at: <http://www.dod.mil.za/news/2013/04/heritage.htm> (검색일 2015.08.10).

Reuter, 2015. Mozambique police seize 1.3 tonnes of poached rhino horn and ivory. *Reuter*, 14 May.

SADC, 2011. *Draft Guideline on the Coordinated Border Management: A Practical Guide on Best Practices and Tools for Implementation*. Available at: [http://www.sadc.int/files/7613/7415/0086/SADC\\_Coordinated\\_Border\\_Management\\_Guidelines\\_-\\_Aug\\_2011.pdf](http://www.sadc.int/files/7613/7415/0086/SADC_Coordinated_Border_Management_Guidelines_-_Aug_2011.pdf). (검색일 2015. 5. 16).

SANParks, 2012a. *The Kruger National Park Propose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s a Possible Solution to the Rhino Horn Crisis*. Mpumalanga: Rhino Hall, Berg-en-Dal, SANPark.

SANPark, 2012b. *Media Release: SANParks enlists retired army general to command anti-poaching*. Available at: <http://www.sanparks.co.za/about/news/?id=55388> (검색일 2015. 7. 2).

SANPark, 2012c. *Rhino in Rock Art*. Mpumalanga: Rhino Hall, Berg-en-Dal, SANPark.

SANPark, 2015. *Great Limpopo Transfrontier Park*. Available at: [http://www.sanparks.co.za/conservation/transfrontier/great\\_limpopo.php](http://www.sanparks.co.za/conservation/transfrontier/great_limpopo.php) (검색일 2015. 8. 17).

SANParks Times, 2014. Green Arm of the Law. *SANParks Times*, Summer Edition, December, p. 5.

Schrader, Hanti. 2015. UNEP assist in anti-rhino poaching efforts. *The Citizen*, 2 July.

Spears, Ian. S., 2004. "Debating Secession and the Recognition of New States in Africa". *African Security Review*, 13(2), pp. 35-48.

The Guardian, 2015. Thieves steal £700,000 of rhino horn from Mozambique police. *The Guardian*, 27 May.

Times Live, 2015. Record Ivory, Rhino Horn Bust. *Times Live*, 15 May.

Tuoi Tre News, 2015. Vietnam Police Further Probe Rhino Horn Trading Ring after \$1mn Seizure. *Tuoi Tre News*, 12 May.

Walker, Clive. & Walker, Anton. 2012. *The Rhino Keepers: Struggle for Survival*. Auckland Park, South Africa: Jacana Meida (Pty) Ltd.

Wilson-Spath, Andreas. 2015. Double Controversy Hits Southern Africa's Trophy Hunting Industry. *Daily Maverick*, 3 August

명예대응팀, 2015. [인터뷰] (2017.7.30).

크루거국립공원환경부직원, 2015. [인터뷰] (2015.7.28).

■ 김수원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Webster University 국제관계 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아시아-아프리카 외교, 개발 협력, 스포츠 외교, 환경 외교, 한류 등이다.

(연락처: suweonkim42@webster.edu)

논문 접수일 : 2015년 08월 30일  
심사 완료일 : 2015년 10월 06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0월 12일

Abstract

## Rhino Poaching and the Border Control in the SADC

Kim, Suweon  
Webster University

The study analyse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rhino poaching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anti-poaching strategy in South Africa in regard to the borders. The focus goes to the links between rhino poaching in the Kruger National Park in South Africa and the border between South Africa and Mozambique. This border is managed based on the Cross Border Management (CBM), a border management guideline in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The CBM, which was funded and initiated by Western donors, focuses mainly o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region and fails to take into consideration distinctive African border conditions such as wildlife conservation areas across multiple borders. Hence, the border management of the SADC makes negative impacts on politics, society and environment of the region. In addition, contrast to its goal of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regionalisation, the border management guideline hinders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gion by hurting a tourism industry and contributing to building negative images of the region such as rhino poaching and xenophobic attacks. Methodologically, a qualitative approach was used in investigation and interviews which took place in South Africa and Mozambique.

Key Words : SADC, rhino poaching, wildlife conservation, foreign aid, border

